

벤처의 또다른 이름은 나눔입니다 불러라 불러라 희망의 노래를

약속과 신념으로 부르는 '나눔의 독창회'

“좋은 제품으로 고객을 감동시킨다. 직원들을 동지처럼 대한다. 돈을 벌면 반드시 사회에 환원한다.” 이는 창업시 가진 비트컴퓨터 조현정 대표의 각오이다. 어느 정도의 성공을 일군 후 조대표는 그 각오를 잊지 않고 사재 20억원을 털어 ‘조현정장학재단’을 설립, 그를 항상 따라다니던 벤처1호라는 수식어를 헛되이 쓰지 않았다.

매년 80명의 학생들에게 지금까지 7억7000여 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였고, IT고급인재양성소인 비트교육센터를 설립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화된 인력양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 창업 당시 했던 자기와의 약속,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신념이 있기에 조대표와 비트컴퓨터가 부르는 나눔의 독창회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착한 기업을 만들어 달라’는 말과 함께 경영권을 이양하고 사재 300억원을 KAIST에 기부한 미래산업 정문술 前대표, 다섯평 창고에서 일군 성공 경험을 대학생들과 더불어 나누고 있는 이레전자 정문식 대표, 이들이 있기에 벤처가 부르는 희망의 노래는 더욱 감미롭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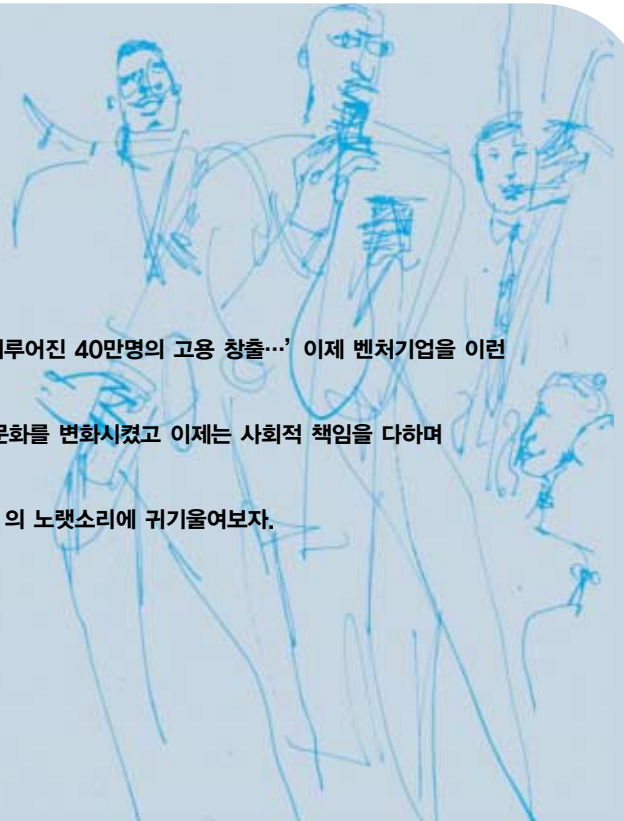


전직원이 입을 모은 '희망의 제창곡'

똑같은 선율을 두 사람 이상이 동시에 노래하는 제창. 인선ENT(대표 오종택)는 지난 5월부터 대표와 임직원이 희망의 제창을 부르고 있다.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기 위해 오대표는 사재 5억원을 털어 ‘인선1%장학재단’을 설립하였고, 임직원 140여 명은 월급의 1%를 이 재단에 기탁해 초·중·고·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이익의 30%는 주주에게, 다른 30%는 재투자료, 또다른 30%는 사내유보, 마지막 10%는 사회를 위해 쓰고 싶다는 이대표와 직원들의 제창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 있다.

또 직원들이 매달 월급에서 5000원씩 적립해 결식아동들에게 점심을 제공하고 있는 ‘한끼지렛대’의 코코넛(대표 조석일), 임직원들이 매달 2000원씩을 모아 어려운 가정환경의 아이들에게 생활비를 후원하고 있는 NHN(대표 김범수)의 ‘2000원 Club’ 역시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벤처의 제창곡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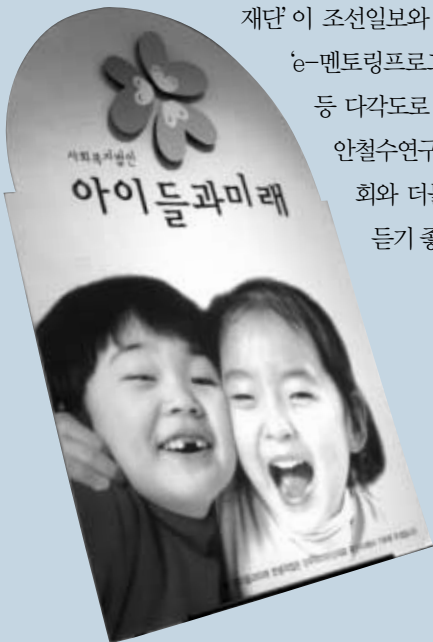


‘IMF 외환위기 극복의 주역’, ‘국내총생산의 3%와 수출의 4%담당’, ‘전문인력으로 이루어진 40만명의 고용 창출...’ 이제 벤처기업을 이런 말들로만 평가하는 시대는 지났다. 그간 도전적인 벤처정신으로 우리사회 전반의 기업문화를 변화시켰고 이제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희망’이라는 이름으로 사회를 공명시키고 있다. 벤처인들이 부르는 그 아름다운 ‘나눔’의 노랫소리에 귀 기울여보자.

같은 노래, 다른 화음 **‘벤처 중창단’**

전방위적으로 펼치고 있는 벤처의 사회공헌은 하모니를 이룬다. 2000년 25개 벤처기업들이 십시일반 87억원의 기금을 모아 설립한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 미래’는 사회와 하모니를 이루는 대표적인 중창단이다. 벤처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처음부터 나눔의 적극 펼쳐야 한다’는 의견일치로 만들어진 이 재단은 따뜻한 시장경제와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각종 캠페인과 이벤트를 실시하며 사회복지의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도 다음(대표 이재웅)의 비영리재단인 ‘다음세대 재단’이 조선일보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e-멘토링프로그램’, 공익·교육·문화 등 다각도로 사회공헌을 펼치고 있는 안철수연구소(대표 안철수) 역시 사회와 더불어 화음을 이루고 있는 듣기 좋은 벤처 중창단이다.



부름수록 커지는 울림, **‘합창과 오페라’**

2001년 시작된 ‘한사랑벤처릴레이운동’은 지금까지 1800여 벤처인들이 1억8000만원의 기금을 모아 7개의 공익단체에 기부하며 국내 직장모금 운동 사상 가장 성공한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최근에는 한글과컴퓨터 (대표 백종진)를 마흔 번째 릴레이주자로 맞고 기부금 3000만원을 천주 교성폭력상담소 등에 지원할 예정이다.

벤처기업들의 선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벤처문화재단’을 설립해 합창보다 큰 울림 ‘벤처 오페라’를 준비중이다. 협회 산하 운영재단 형태로 100억원의 출연기금을 모금해 벤처기업과 벤처인이 펼치는 나눔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이 재단의 설립으로 바람직한 벤처생태계 조성은 물론 차세대 벤처리더와 윤리경영을 실천하는 벤처기업가를 양성해 벤처 기업인들에게 사회공헌 인식을 확산시킬 계획이다.

이제 벤처는 더 이상 ‘모험’이 아닌 ‘나눔’의 이름이다. 벤처기업들은 ‘벤처’라는 뜻을 새로운 개념으로 확대재생산하며 사회공헌을 통해 진정한 벤처정신, 기업가정신을 보여주고 있다.

